

월요일

들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23-25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묵상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 라는 시는 언제 읽어도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소소한 행동과 대수롭지 않은 마음까지를 기도라 하니까요. 시인은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맞잡은 두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믐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뿔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그 모든 것이 기도라고 노래합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라는 옛말이 있지만,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일은 원수를 오래 기억하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기근의 때를 지혜롭게 넘기게 한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고된 일로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죽겠네.” “못살겠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탄식의 내용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문장이 되지 못합니다. 괴로움 앞에서 말은 똑똑 끊기고 탄식과 눈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말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탄식을 다른 사람들은 알다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탄식조차 귀담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말 너머에 계신 분이, 말보다도 마음을 살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처 없이 빈들을 헤매던 중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하갈은 아이를 덩불 아래에 뉘어 놓고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주저앉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듣는 아이는 따라서 울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샘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는 데서 하나님의 은총은 시작되었습니다(창 21:8-21)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청진기가 우리 가슴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PRAYER

기도의 꼴을 갖추지 못해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악 묵상

황량한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있을 우물 때문이라고 어린왕자는 말합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서로 잘 어울리는 화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끄럽게 부딪히는 비화성음에 있다고 음악가들은 말합니다. 작곡가 비발디 (1678-1741) 역시 고통 없는 평화는 없다고 노래하면서 아픔과 고뇌의 길만이 평화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는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라는 역설적인 논리와 맥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그저 자연의 섭리에 기대어 노래한 것이 아니라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음악 전반에 담아낸 찬가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는 평화는 없어라/ 예수 안에는 참 평화가 있기에/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 영혼은 만족합니다/ 당신의 순결한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알렐루야."

비발디는 사제로 서품 받은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병약하게 태어난 데다 지병인 천식이 악화되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발디는 나중에 교회 소속 음악원의 바이올린 교사가 되어 본격적인 음악가의 길로 접어들면서 바로크 시기의 기악 음악이 융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작품을 통해 근대 바이올린 협주곡 형식이 차츰 틀을 잡아갔습니다. 비발디 하면 수많은 협주곡과 너무나도 유명한 <사계> 로 인해 기악곡만 작곡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악원의 합창장을 겸하면서부터는 오라토리오와 미사, 모테트, 칸타타 등 여러 장르에 걸쳐 교회 음악의 수작들을 쏟아냈습니다. 기악 분야에서의 뛰어난 선구자적 역량이 성악 분야에서도 십분 발휘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모테트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등 그가 남긴 여러 교회 음악 작품들이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제와 음악가, 어저면 비발디는 이 두 영역을 하나로 봤을지도 모릅니다. 성직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평생 괴로워하며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았을 그였지만, 음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화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뇌와 갈등 후에 누리는 평화라 더욱 더 소중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코로나 19로 세상은 암울하지만 이 긴 터널 끝에는 틀림 없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참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